

“좀 늦었어. 우리 성의니까 받아.”
 말을 마친 진희가 구두코로 소퐁백을 툭, 툭, 쳤다. 앞부리에 박힌 금색 징이 불빛에 반짝 빛났다. 진희의 태도는 몹시 불쾌했다. 그대로 일어나 나가고 싶었다. 그렇다고 탁자 위 봉투를 덩석 집어 들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전시 오픈 날, 진희가 보랏빛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이런 고혹적이고 몽환적인 색은 처음 봤다며 염색에 관해 물었다. 나는 약간 흥분했다.
 오빠자는 염색 입자가 거칠고 타닌 성분과 기름기가 있어 전에 침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래 주물러주고 자주 비틀듯 짜서 염액을 침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빠자 2백 그램을 물에 가볍게 헹궈준다. 물 2천 시시를 90도 끓인 다음 삼십 분 담가서 색소를 추출한다. 고온제로 거른 다음 똑같은 방법을 두 번 거친다. 이때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 30도에 습윤 시켜둔 섬유를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린다. 50도가 되면 불을 끄고 삼십 분간 잘 섞어줘야 원하는 색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매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진희는 이렇게 섬세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색이라는데 놀라는 눈치였다. 진희의 진지한 표정에 기분이 들렀다. 보랏빛을 내는데 중요한 매염제의 설명도 덧붙이려는데,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어울리냐고 물었다. 진희에게 다가갔다. 스카프를 붉은 리본 모양으로 묶은 다음 목 뒤로 엮갈리게 돌렸다. 스카프 양쪽 끝은 리본 매듭에 넣어 반대 방향으로 뻗었다. 쉽고 간단했지만 예쁜 선물 상자를 장식한 리본 모양이 되었다. 진희가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며칠 후 친구들이 스카프를 사겠다고 찾아왔다. 언젠가부터 공장까지 오는 거 성가시다며 모임 때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갈수록 가격을 쥐고 원+원으로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동안 내게 힘이 되어준 건 분명했다.

소퐁백을 탁자 위로 올렸다. 스카프와 소품을 하나씩 포장했다. 친구들이 들뜬 말도 염색 기법과 천의 소재, 그리고 질감에 관해 설명했다. 내 자존심이였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골고루 건네며 말했다. “선물이야.”

눈치 빠른 진희가 호들갑스럽게 분위기를 띄웠다. 봉투를 집어 들고 카페를 나왔다. 방향각각을 상실한 채 밤거리를 헤맸다. 극심한 무력감에 무릎이 꺾이고 발걸음이 뒤엎졌다. 이사장 말대로 재고 떨어는 한 셈이었다. 하지만 차오르는 설움은 아쩔 수 없었다. 여행사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출입문에는 배낭 여행, 패키지 여행, 그룹 여행, 모든 여행 가능, 이라고 쓰여 있었다.

선배, 나 갠지스강에 왔어요. 강으로 가는 길. 꽃을 파는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섞여 꽃을 샀어요. 강에 도착하자 살인적인 더위와 시체 태우는 열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강가에는 배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도 줄지어 있었어요. 다비식을 보려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강가엔데 도착하자 군데군데 쌓아 놓은 장작더미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은 더 맹렬했어요. 그때 인솔자가 촛불을 나눠주면서 소원을 빌라고 하더군요. 죽은 자의 마지막 의식을 보면서 추모가 아닌, 산 자를 위한 소원을 빌라니……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감았어요. 나도 함류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이 일었어요. 먼저 떠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살고 싶다고, 나 좀 살게 해달라며 쫓다발과 촛불을 강물에 띄워 보냈어요. 순간, 그동안 나를 잠식한 슬픔이 먼지처럼 사라지는데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인도는 그런 곳인가 봐요.

염서를 읽은 후 나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나윤은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때론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던 동지였다. 그림을 천직으로 여기던 애인이 극심한 생활고와

작품에 대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했다. 상실감을 견디지 못한 나윤도 손목을 그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언젠가 화가의 전시를 앞두고 나윤과 찾아갔다. 그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
 타는 듯 붉은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맨발에 두건을 쓴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끝도 없이 어딘가를 향해 몰려갔다. 뿔가에 홀린 듯 걸터 갠지스강에 도착한 그들은 몸을 씻고 복을 치며 죽은 영혼을 보내는 의식을 행했다. 삶과 죽음을 다르다고 생각지 않는 듯, 이승에서 수고했으니 잘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느껴질 뿐 슬픔은 없었다. 인도인과 행색이 별반 다르지 않던 그는 아,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가슴속에 슬픔이 매설된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었다. 나윤의 외모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쩍 마른 몸피에 안색은 창백했고 눈

햇살을 등지고 앉아 졸 때면 구부정한 등이 오르락내리락 얼굴에 퍼지는 주름의 곡선에서 삶을 읊아맨 단단함이 느껴졌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같았다

빛만 형형했다. 그 모습에 불안해하며 물었다. 정말로 그들은 삶과 죽음을 하나라고 믿는 거냐고, 혹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의연 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이 아니냐고. 그때 그들이 했던 대답은 뭐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행사 기간에 비워둔 공방은 먼지가 수북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걸레에 물을 적셨다. 염색 매대를 뒤고 돌아서다가 현기증에 팔씩 주저앉았다. 손에 닿는 뿔가를 잡고 몸을 일으켰다. 투박한 광목의 질감이 익숙했다. 긴 나뭇가지를 벽에 고정하고 광목을 색색으로 염색한 뒤 좁은 폭으로 접어 길게 늘어트린 소품이었다. 아이는 광목 뒤에 숨는 걸 좋아했다. 아이가 숨어들면 광목이 들켜서였고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면 언마를 부르며 제 위치를 알렸다. 아이의 흔적은 광방 곳곳에 남아 있었다. 염료 물이 담긴 대야에 천을 담그면 작고 오동통한 손도 함께 넣었다. 내 손놀림을 흉내 내듯 자박자박 누르며 나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할머니한테 산 고구마나 옥수수를 찌서 아이와 마주 보고 앉으면 내 입에 먼저 넣어주고 까르르 웃던 아이, 염료를 손에 묻혀 광방 곳곳에 찍어놓은 손자국을 작품이라 우기던 모습까지……아이의 기억은 너무 생생했다.

싱크대 아래 펼쳐둔 대야를 꺼냈다. 코치닐을 털어 망에 담았다. 깍지벌레라고도 불리는 코치닐은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였다. 산란 전의 암컷을 찌서 말린 후 사용했다. 농도에 따라 분홍에서 선홍색까지 얻을 수 있는 염색 재료였다. 코치닐에 물을 붓고 불에 올렸다. 물이 끓으면서 핏빛 같은 선홍색이 우러났다. 불을 끄고 찬물을 섞어가며 색을 조절했다. 아이의 잠옷을 꺼냈다. 염료 물에 담그고 얼룩이 생기지 않게 자박자박 눌렀다. 염료 물이 달자 갈라진 손톱 밑이 아렸다.

딱……. 딱……. 반복적으로 벽을 치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 ‘2호 채정’, 입구에 달린 작은 아크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철사로 엮어놓았던 게 어썩어 한쪽이 풀린 모양이었다. ‘10호 공근’으로 발을 올렸다. 작업 중이던 공 선생이 고개를 쓴 채 눈으로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내가 간판을 가리키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저었다. 쇠를 자르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고약했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쇠조각을 물끄러미 보았다. 저렇게 잘린 조각들은 곧 어떤 형태로든 되살아났다. 공 선생의 손길에 숨이 불어넣어지고 작품으로 탄생했다. 내 아이도 저 쇠조각처럼 분리되었다

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형태를 잡아가고 숨이 날아져 다시 내 품으로 올 수만 있다면……. 공 선생이 다시 손을 내저었다. 때릴리듯 공방으로 돌아왔다. 염료 향 때문인지 눈이 매웠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다. 저만치 할머니가 펼쳐 놓은 보통이가 보였다.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환한 햇살 속에 앉아 호박잎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에 맑은 쇠소리를 내며 하얀 실이 벗겨졌다. 나를 흘깃 본 할머니가 호박잎 한 줌과 청양고추를 봉지에 담아 내밀었다.

“밥만 잘 먹으면 살아지는 게여.”
 나는 피식 웃었다. 앞치마에서 천 원짜리 두장을 꺼내 내밀었다. 할머니가 마수라며 짐을 뺄고 이마에 붙였다가 꽃무늬 앞치마에 넣었다. 할머니의 과한 행동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었다. 호박잎을

데치고 청양고추를 다져 넣은 매콤한 양념장에 밥을 먹으면 할머니 말대로 오늘도 살아질 것이다. 봉지를 들고 돌아서는데 햇빛에술춘 아치형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폐교를 구형에서 인수하면서 햇빛에술춘은 문을 열었다. 교실 벽을 허물어서 도예 체험장으로 만들었고, 염색이나 공예 체험의 학습장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그리고 정문 옆에 기억 자 형태의 조립 건물을 지어 십여 개의 공방을 입주시켰다.

이곳 폐교는 아버지의 일터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흙을 짓겨 여러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색이 변하는 걸 지켜보며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전까지는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장미가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다가가 내 품에 안기던 곳이기도 했다. 처음 입주하던 날, 휘날리는 만국기를 보며 아버지가 교문에서 서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살아계셨다면 나를 응원했을 아버지. 하나뿐인 딸이 이렇듯 가난

어느새 서쪽 창가로 스며든 노을이 벽을 타고 올라왔다 광목 위까지 차오르자 등고선에 있던 나비가 날아올랐다 머리 위를 맴돌던 나비가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하고 못난 작가로 남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 선생!”
 봉지를 들고 환관에 들어서는데 이사장이 불렀다.
 “공방을 옮겨야겠어요!”
 “네?”
 잠시 땀을 들이던 이사장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공방에 한 달에 삼 분의 이는 상주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행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구형에서 정해진 제 자리예요.”
 나도 모르게 말끝이 가팔라졌다. 이사장은 건물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장소를 옮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꾸느냐고 했다. 어디로 옮겨도 곰팡내 나는 지하보다 낫지 않잖아? 지하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을 쳐다보았다.
 “그럼, 누구와 바꾸라는 거예요?”

햇기집을 두어 번 하더니 매듭 정이라고 말했다. 개량 한복에 올림머리가 잘 어울리는 매듭 정을 좋아하네 이사장이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작가는 없었다. 얼마 전의 일이 생각났다. 공방으로 찾아온 이사장이 구형장 부인 생일이 곧 돌아온다며 전시할 때 메인으로 진열했던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말뚝을 가능하느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관습처럼 이어지는 갑취에 동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물 할 거면 원가로 드리겠다고 했다. 이사장은 뺨은 감을 씹은 얼굴로 나갔다. 나는 반박보다 침묵을 택했다. 부당함을 내세워 따지고 들면 손해였다. 내년에는 이 자리도 잃을 수 있었다. 공방에 소속되지 못하면 행사장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도, 유치원 염색 체험학습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다. 이사장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공방을 옮기는 날 은종일 비가 내렸다. 이사장에게 하루나 이틀, 이삿날을 보류해 달라고 말해 볼까 하다가 구차해지기 싫어 그만두었다. 공 선생이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줬다. 비는 그칠 듯하다가 이어졌다. 차양도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짐을 옮기는 건 쉽지 않았다. 대부분 원단이어서 비닐로 포장해서 매고 푸는 일까지 보태서 밤 열 시가 되어서야 짐정리가 끝났다. 시장기를 달래기 위해 공 선생과 포장마차에 들렀다. 나는 잔치국수는 손도 대지 않고 소주만 마셨다. 허겁지겁 국수 그릇을 비워낸 공 선생이 내 손에서 소주병을 낚아챘다.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이 선생, 도시재생사업으로 달오름 동네에서 작가들을 모집한다고. 한쪽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는 데 천연염색이나 뜨개방 필트 작가에게 우선권이 있대요. 여기가 관리비만 내면 되지만 생활에 보탬도 안 되잖아요. 대신 그곳은 보증금이 있나 볼디다.”

이사장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내게는 행사장 연결도 쉽지 않을 거였다. 무엇보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층으로 옮긴 공방은 기억 자 형태로 꺾인 지점이었다. 그래서 은종일 햇빛이 들지 않았다. 작업하는 틈틈이 복도에 나가 해바라기 했다. 난간에 턱을 괴고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위에서 보는 할머니는 당당하고 강건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빠져서 숭숭 비었고 가녀린 몸피는 햇살에 말라 바

스러질 낙엽 같았다. 그 모습에 따져 묻고 싶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자식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 나 또한 장미를 보내고 깨달았다. 세상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지는 게 아님을…….
 할머니는 틈만 나면 좋았다. 고구마 줄기 껍질을 벗기면서도, 잘 익은 고추 꺾지를 따면서도, 햇살을 등지고 앉아 자물자를 쥔 때면 고개와 구부정한 등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손님이 오자 등이 곧추 펴지며 할머니가 웃었다. 얼굴에 퍼지는 주름의 곡선에서 가팔랐던 삶을 읊아맨 단단함이 느껴졌다. 단단함은 아픔이었다. 오랜 세월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생긴 웅이 같은 거. 그래서 단단함은 또 다른 거룩함이었다. 그렇게 푸성귀를 담은 할머니의 움직임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같았다. 그때 할머니 등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비는 한참을 머물다 느릿느릿 날아올랐

다. 노란 원복을 입고 나비처럼 팔랑이며 차에서 내리던 장미였다. 수목화처럼 무겁고 진중함 삶을 살아낸 가녀린 몸피의 노년과 나비처럼 팔랑이던 아이의 모습은 생명의 순환이었다. 순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섬광처럼 작품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다. 작품 이름은 등고선이었다.

스케치북을 펼쳤다. 도안을 스케치했다. 천연염색이란 배경이 되는 색이라고 지도교수는 말했다. 천연염색과 섬유 조형을 접목한 작품을 만들 생각이었다. 옥사를 바탕색으로 하고, 울 린넨 명주로 등고선을 나타내고, 노방으로 나비를 만들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보니 「천년의 세월」 공모전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옥사를 가로 30센티 세로 80센티 길이로 네 개를, 그리고 울 린넨 명주는 각각 크기가 다른 등고선 모형으로 스케치했다. 천을 자르기 위해 나그참과 향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일면서 향이 퍼졌다. 백단향과 허브가 섞인 향이었다. 아이를 떠나보낸 뒤 나윤의 권유로 질리도록 피웠던 향이었다. 공모전에 작품을 보낸 뒤 갠지스강으로 떠날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섞여 몸을 씻고 복을 치며 아이의 잠옷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제대로 장미와 이별한 뒤 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옥사를 반으로 접었다. 스케치한 선을 따라 향의 끝에 대고 움직였다. 재를 태우듯 끝이 타들어 가면서 천이 나뉘었다. 향에서 나오는 열기와 긴장감에 손이 끈적였다. 먹을 꺼냈다. 먹을 가는 건 잡뽕을 몰아내는 일이기도 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움직임은 부질없는 생각들을 지우기 위해 좋았다. 미지근하게 물을 가한 뒤 옥사를 담갔다. 3시간이 지난 후 대야에 담아 옥사로 갔다. 햇빛이 좋았다. 건조대를 펴고 널었다. 먹물이 떨어져 하얀 시멘트 바닥에 무늬를 만들듯 금세 사라졌다. 수목화 느낌의 갯빛만 남았다.

공방으로 돌아왔다. 옥사가 마를 동안 오빠자와 로고우드를 물에 행궈냈다. 작은 먼지, 흙한 톨, 꼼꼼하게 관리해야 순수한 색을 얻을 수 있었다. 울 린넨 명주를 염색물에 담갔다. 보라와 분홍, 그리고 중간색을 얻을 때까지 염색하고 그늘에서 말린 후 다시 담그기를 반복했다. 젖어있을 때와 말렸을 때 색의 간극은 예상을 벗어났다. 색이런 만큼이었다. 색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염색시간이나 건조 그리고 결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었다. 삶도 마찬가지로였다. 전시에 눈이 멀어 간만의 차이로 아이를 잃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였다. 명양과 곡선을 살리며 손바느질로 등고선을 이었다.

상차에서 메리골드를 꺼냈다. 물을 끓인 다음 미지근하게 식혀서 노방을 담갔다. 20분 후 물에 헹궈서 말리는 작업을 아홉 번 반복했다. 물속에 잠긴 노란색이 잔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드러났다 숨었다 했다. 몽환적 형광빛이었다. 천을 고정하고 향에 불을 붙였다. 향을 천 입지와 겹지의 힘 조절이 중요했다. 향을 가볍게 잡고 나비 모양으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움직였다. 날개의 완만한 대칭에 집중하며 한 땀 한 땀 새기듯이 천을 태웠다. 날개 여덟 개가 만들어졌다. 한 쌍의 날개를 마주 보게 놓았다. 몸과 더듬이는 철사로 고정했다. 눈은 투명한 유리알을 붙였다. 첫 번째 등고선에 앉은 나비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 네 번째에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고정했다. 나비가 날아오르는 길은 금색 메달사로 터치하여 섬세하게 표현했다. 반짝이는 은색 실을 형클어 아련한 아지랑이도 형상화했다. 고리를 만들어 네 개의 작품을 붓에 연결했다.

광목이 걸린 나뭇가지에 작품을 걸었다. 어느새 서쪽 창가로 스며든 노을이 벽을 타고 올라왔다. 광목 위까지 그득하게 차오르자 등고선에 있던 나비가 날아올랐다. 네 머리 위를 아련하게 맴돌던 나비가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광>

단편소설 당선소감

“이제 시작이다. 인생의 유턴 시점을 찾았다”



김정숙 당선자

▲ 1961년 여수출생
 ▲ 생오지 청창대학 3년 수료

이제 시작이다. 인생의 유턴 시점을 찾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소설을 썼다. 현실에서는 막히는 문맥이 술술 풀렸다. 꿈속에서의 글쓰기는 매번 만족스러웠다.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도 깨어났을 때의 안타까움은 컸다.
 2020년 2월, 오랫동안 하던 일을 접었다. 삶은 지속적으로 행복해졌다. 그리고 당선 소식을 들었다. 뒤편 열심히 하던 뎀다는 답을 얻은 셈이다. 그 답을 주신 광주일보사와 정지아 작가님께 무한한 감사사를 드린다.

좋은 스승과 문우들을 만났다. 소설의 기초를 가르쳐 주신 심영의 작가님, 그리고 미미한 나의 필력을 알아봐 주고 채찍질해준 장마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오지’ 문우들과 그곳에서 만나 언제까지나 함께 할 보석 같은 ‘갈나함’ 문우들, 끝없이 되풀이되는 합평에도 지루해하지 않고 질책해준 ‘돌소공’ 문우들께 감사사를 전한다. 무엇보다 내 삶에 축복인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에게 내 아이들로 봐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올해 94세인 엄마, 엄마! 라고 부르면 오야! 라고 오래오래 대답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당선 소식에 흥분된 며칠이 지나면 다시 엉덩이 싸움은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똑같은 나날을 견디는데도 이전과는 다를 것을 안다. 지판을 누르는 손에 힘이 가해질 것이다.

소설 부문 심사평

“할머니와 예술가의 손 묘사 장면이 아름다워”



정지아 소설가

▲ 중앙대 문예창작과 박사과정 졸업
 ▲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 이호석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
 ▲ 소설집 ‘숲의 대화’ 등 다수

2020년은 우리 인류가 전례없는 위기에 맞닥뜨린 시기였다. 코로나라는 인류의 위기가 과연 문학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다. 뜻밖에 단 한 편의 소설에도 이러한 시대상은 담겨져 있지 않았다. 코로나 시대가 즉자적으로 소설에 반영되었을 거라는 기대가 세부론 것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거리두기의 시대가 내면으로의 침잠이라는, 문학의 핵심적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본심에 오른 것은 김득진의 ‘장인의 길’, 범영의 ‘신발’, 김정희의 ‘등고선’, 세편이었다. 요리를 삶과 접목시킨 ‘장인의 길’은 스토리가 흥미로웠다. 다만 아버지의 서사가 전조 없이 너무 성급하게 끼어 들고, 두 여자의 이야기가 요리만큼의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신발’은 소설의 열거를 짜

는 솜씨가 총총하고 신발이라는 상징 또한 신선했다. 나무랄 데 없는 작품이었으나 주제가 결국 남편으로부터의 탈출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 아쉽다.
 염색을 소재로 한 ‘등고선’은 예술과 노동을 등고에 놓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는 작품이다. 아이의 죽음이라는 상투적인 서브 플롯이 마음에 걸렸으나 평생 노동을 해온 나를 파는 할머니와 예술 노동자들의 손을 묘사한 한 장면의 아름다움이 당선작으로 선택하게 했다. 설부른 낭만이나 예술적 허영에 빠지지 않은 점도 작가의 미덕이라 할 만하다.
 자반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 된 요즘에도 많은 사람이 문학이라는, 인간과 삶에 대한 자기 반추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 큰 위로를 얻는다.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문학에의 꿈을 가진 모든 투고자들에게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낸다.